

[제목] 제자가 없다(막8:31-38)

[일시] 2014년 11월 2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찬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PW: 믿음, MIW: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가주어: 제자들

T.S: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1. 서론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눅18장에 보면 한 부자청년이 예수께 나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18:18)** 만약 오늘날 이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 답변해주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됐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우리교회로 치자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그 부자청년에서 그렇게 답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럼, 네가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자 그는 **“예,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해주셨을까요?

눅18:22-23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서는 그 청년이 자기가 부자로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로 사는 것이죠?”고 맞장구쳐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청년임도 불구하고 벌써 부자가 된 것은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얻기를 위하여 던지** 그 청년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로 끝이 납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명령은 단회적으로 끝날 명령이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일컬어 **‘제자도’**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서는 영생얻는 방법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 볼 말씀은 스승을 따라는 것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즉 제자도에 관해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제기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다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나더러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해주니까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능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나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나도 암송해서 행하면 제자가 되는 것인가요?

2)청중적 접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 정도 제자훈련을 받으면 제자훈련 졸업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성도들은 **〈제자훈련과정〉**이라는 **훈련과정**을 통해서, 매주 8나 번씩 목회자와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한 주간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고 성경 2구절을 암송하고, 집에서 보조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을 숙제로 내 놓고, 주제별로 커리큘럼화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졸업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제자훈련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3)본문문제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A.D.29년경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지 **한 3년쯤 지날 무렵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오리아 한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어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여 절대 죽지 마옵소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엄히 꾸짖는 다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곧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4) 문제 발생 원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자기의 십자기를 스스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뒤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가.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의 핵심은 자기의 생각과 야망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맨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4:18-22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쉬워 보이나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을 따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직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면 굶어죽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부의 일보다는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에게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나선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막10:35-37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디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데는 **장차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자신은 주님의 좌우고관들이 되어 집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

자,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이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들은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마 16:22)”**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어버리면 그들의 꿈과 야망이 물거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들과처럼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의해보십시오. 그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사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도 사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주여 저 사람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길에서 먼 사람입니다.

나.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도구**입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로마에 반역하는 자를 본보기로 죽여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역죄인 처형법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목말라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먼저는 채찍에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막10: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어떠한 고난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도 나에게 내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결코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카톨릭이나 칼빈의 장로교는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온갖 고문을 가했고, 화형을 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예정론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자신이 직접 낫으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영광은 ‘고난’이 없습니다. 단지 사탄을 섬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

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서 얻는 영광입니다. 땀기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눅4:5-6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12제자들처럼, 사도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행20:23-24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코스를 마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5)문제 심리묘사

그러자 제자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식구들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받을 준비를 하란 말이지?”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모든 꿈과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매우 어렵습니다.

3. 문제해결

1)인간의 헌신

결국 그들은 주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제자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주님을 따라갔지만, 곧이어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후 다시 찾아오시어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참된 스승이신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2)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자기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의 성취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전파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구원언제 할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 번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자신의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일생동안,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부활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참된 스승이신 성령을 받고나니 모두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처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요?

첫째, 최소한 그들 모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막 10:29-30).

막10:29-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천체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둘째,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눅22:28-30).

눅22:28-30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니 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

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셋째,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곧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었습니다(딤후4:7-8).

딤후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나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 청중의 더 큰 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즉 영생연기에 합당한 자인가가 여기에서 판가름납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신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판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자기자신을 부인한 경험이 없고, 오직 내 생각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관찰시키는 것에만 몰두해왔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전파를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거나 고난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사실 천국에 가까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될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서 왕권의 축복과 존경의 면류관의 축복을 그도 받을 것입니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믿는다는 말하는 자는 많지만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교회로 보면, 회개하는 자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 “나도 회개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천국가려는 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를 읽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음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곧이어 제자들을 뽑으셨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는 제자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종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성된 제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제자일 뿐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께서 내리신 명령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명령형으로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성도들을 훈련시켰다고 스승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 1년 받았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자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제자의 완성은 저 천국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겠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 결단의 축복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그분이 사로잡으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꿈과 야망도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면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고 있으니 구원받을거야”라는 생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영생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 감사와 회개

주여,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는 우선 자기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훈련목표는 제자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믿는 자로만 살아왔을 뿐 제자로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주소서.

주여, 고난없는 영광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주여, 이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린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고난 앞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님을 붙들지어다.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주님의 계획은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였구나.

2. 제자가 되어야 영생언기에 합당한 자로구나.

3. 제자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의 생각까지도 부인하는 자로구나.

4.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는 사 람이로구나.

5. 제자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셨구나.

6. 제자의 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가야 하는거구나.